

## 2020 국내 보건산업 수출 전망

산업통계팀  
신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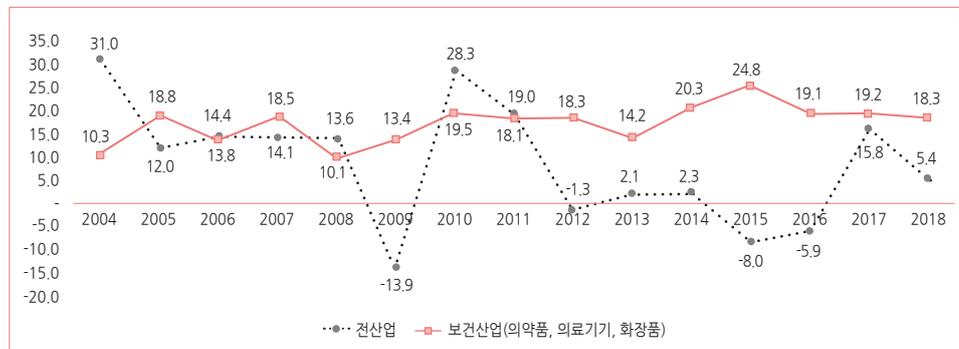
### I 배경

2020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71억 달러, 의료기기 43억 달러, 화장품은 100억 달러에 근접한 91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보건산업 수출 키워드는 '선진 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질적·양적 동반성장으로 전환'

- 2018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초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음
  -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품목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
  - ※ 완제품 분야에서 1,000억 달러를 수출한 사례는 美 항공기, 中 컴퓨터, 獨·日 자동차 등이 있으나, 단일부품으로는 한국 반도체가 유일
- 또한 2018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 역시 144억 달러(전년 대비 18.3% 성장)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2004년 이래로 1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음
  - 의약품 및 화장품은 5대 수출 유망소비재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전산업 및 보건산업 수출액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본고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2020년까지 국내 보건산업의 수출을 전망하고자 함

## II 분석방법

- 정량분석, 전문가 조사, 벤치마크 지표 활용 및 간담회 등 다양한 분석방법 활용, 체계적이고 정치한 전망 수치 도출
  - 집단별 평균 증가율 산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가중치 조정을 거쳐 최종 전망치 산출

[그림 2] 보건산업 수출 전망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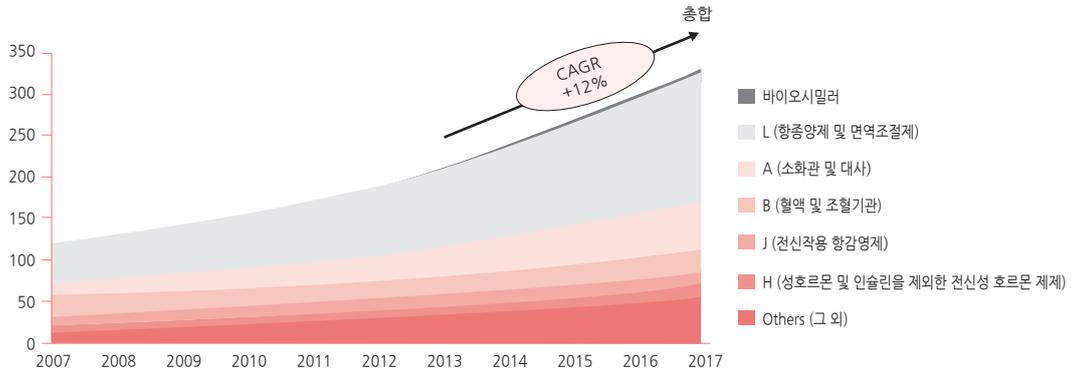


## III 보건산업 수출 동향

### 1. K-BIO,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시장 선점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항종양제, 면역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시장은 300조 원('17년)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아직 그 규모는 미미하나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3]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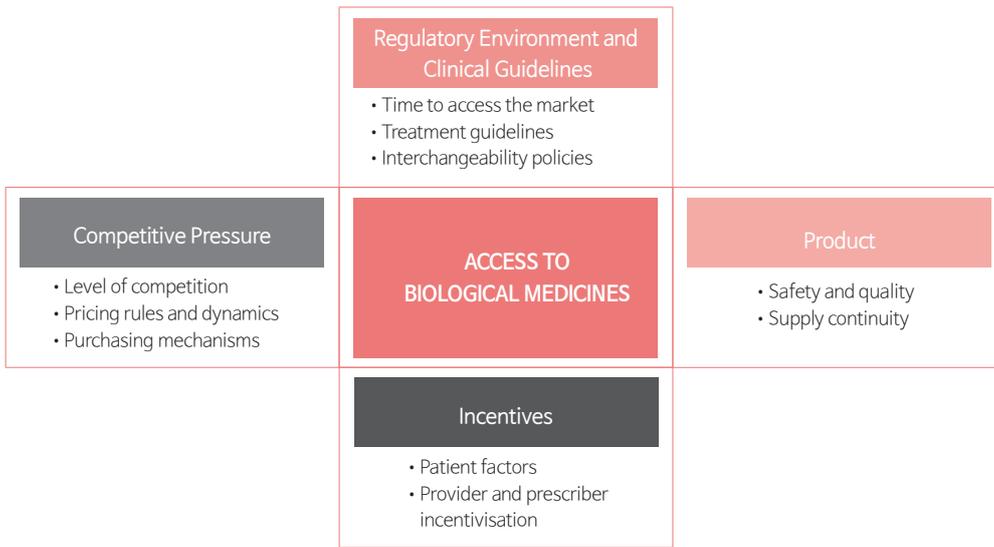


주: Others : C (심혈관계), D (피부과),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M (근골격계), N (신경계), P(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R (호흡기계), S (감각기관), V (기타)의 합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보건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2018.11.

- 향후 4년간(2019~22년) 52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 절감 및 보험 재정 안정화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중(IQVIA)
  - 미국, 유럽(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 美 FDA 시장 기반 경쟁 강화 정책 목표 및 ‘Biosimilar Access Plan(BAP)’ 발표(‘18.07.)
    - \*\* 英, 獨 등 유럽 국가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 Prescription quota, discount contract
    - \*\*\* 中 13.5 바이오산업발전 계획(2017): 2020년 바이오산업 10조 위안 시장 규모 확대 계획 발표

[그림 4] 바이오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향



- 바이오시밀러는 제품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함.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총 10개 제품(유럽 EMA 7개 및 미국 FDA 3개)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첫 번째로 허가 받아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시장을 선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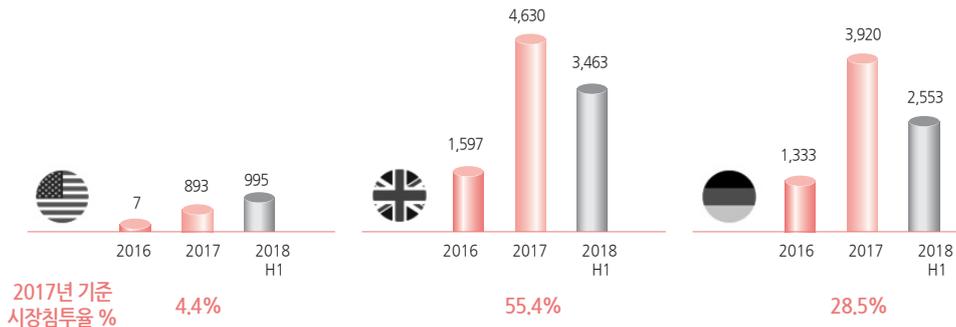
<표 1>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시판허가 현황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허가시기/단계	
			EMA(시장진입 순서)	FDA(시장진입 순서)
셀트리온	램시마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맵)	2013.08. (1 <sup>st</sup> )	2016.04. (1 <sup>st</sup> )
	트룩시마	맵테라(리툭시맵)	2017.02. (1 <sup>st</sup> )	2018.11. (1 <sup>st</sup> )
	허췌마	허셉틴(트라스투맵)	2018.02. (2 <sup>nd</sup> )	2017.07. (허가 신청)
삼성 바이오 에피스	브랜시스	엔브렐(에타너셉트)	2016.01. (1 <sup>st</sup> )	임상 완료
	렌플렉시스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맵)	2016.05. (2 <sup>nd</sup> )	2017.04. (2 <sup>nd</sup> )
	삼페넷	허셉틴(트라스투맵)	2017.11. (1 <sup>st</sup> )	2017.12. (허가 신청)
	하드리마	휴미라(아달리무맵)	2017.08. (2 <sup>nd</sup> )	임상 완료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보건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2018.11.

-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영국에서의 시장침투율이 55.4%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이미 대체하는 등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은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 정책과 맞물려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미국에서의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액은 2017년 893억 원으로 침투율이 4.4%로 미미하나,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연간 판매액을 돌파하며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5] 국내 바이오시밀러 주요국 판매 현황(억 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보건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2018.11.

## 2. 의료기기 중국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

- 국내 의료기기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연평균('13~'17) 2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표 2> 국내 의료기기 수출 상위국 현황(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중	YoY	CAGR ('13~'17)
2	중국	232	254	331	445	509	(16.1)	14.3	21.8
3	독일	221	199	227	251	238	(7.5)	-5.1	1.8
4	일본	171	188	187	200	198	(6.3)	-0.8	3.7
5	인도	62	100	101	99	127	(4.0)	28.4	19.8

주: 순위는 2017년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출입 실적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중국은 현지 기업들이 생산하기 힘든 고가의 첨단수술장비, 진단기기 및 치료설비를 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對중국 의료기기 주요 수출 품목은 선진국과 달리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수술장비 보다는 성형용 필러, 소프트 콘택트렌즈, 치과용 임플란트 등의 의료용 소모품과 치과기기/용품들이 주를 이룸
- 국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임. 향후 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소모품과 치과기기/용품에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3위, 49.3백만 달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1위, 123.0백만 달러), 매일착용소프트 콘택트렌즈(1위, 46.4백만 달러),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1위, 43.4백만 달러)

<표 3>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중국 점유율(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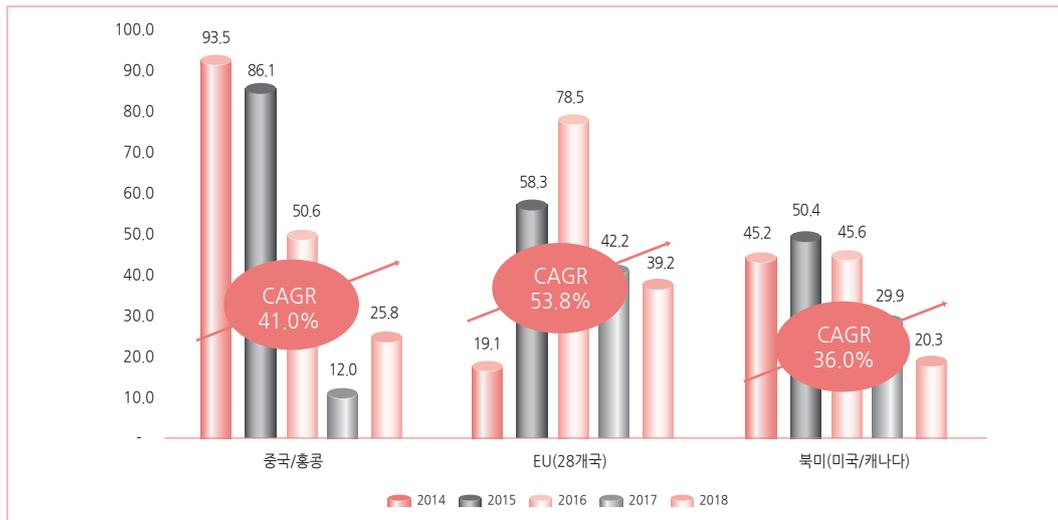
순위	품목명	수출국 및 수출액						수출액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국	
1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독일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106개국	551.5
		142.4(25.8)	61.9(11.2)	49.3(8.9)	42.1(7.6)	32.0(5.8)	223.8(40.6)	
2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78개국	188.1
		123.0(65.4)	31.1(16.5)	16.4(8.7)	2.8(1.5)	2.4(1.3)	12.5(6.6)	
3	매일착용소프트 콘택트렌즈	중국	일본	태국	독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94개국	152.7
		46.4(30.4)	27.3(17.9)	16.5(10.8)	16.5(10.8)	11.8(7.7)	34.2(22.4)	
4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101개국	140.2
		43.4(31.0)	16.6(11.9)	10.8(7.7)	6.1(4.4)	5.7(4.1)	57.4(41.0)	
5	개인용체외진단 검사시약II	미국	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영국 등 134개국	132.9
		30.9(23.3)	15.5(11.7)	9.1(6.9)	5.6(4.2)	5.5(4.1)	66.1(49.8)	

주: 괄호 ( ) 안의 값은 각 해당 품목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출입 실적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3. K-Beauty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

- 2018년 화장품 수출은 중국/홍콩이 40억 달러(63.4%)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북미 6억 달러(9.1%), 유럽(EU 28개국) 2억 달러(3.4%) 등 순으로 나타남
  - 對유럽 화장품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전년대비 39.2% 증가하며 타 지역(중국/홍콩 25.8% ↑, 북미 20.3% ↑) 대비 높게 나타남
  - ※ 對EU 주요국 수출 증가율(YoY): 영국(70.4%), 폴란드(51.5%), 프랑스(45.9%), 독일(32.0%)

[그림 6] 지역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 비교(2014~201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K-Beauty 품질과 인지도 향상으로 기존 중화권 중심의 수출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유럽지역의 연평균 성장률('14-'18)이 53.8%로 수출 최대국인 중국/홍콩(41.0%) 및 총수출(34.9%)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

(표 4) 주요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 및 증가율 현황(2014~2018)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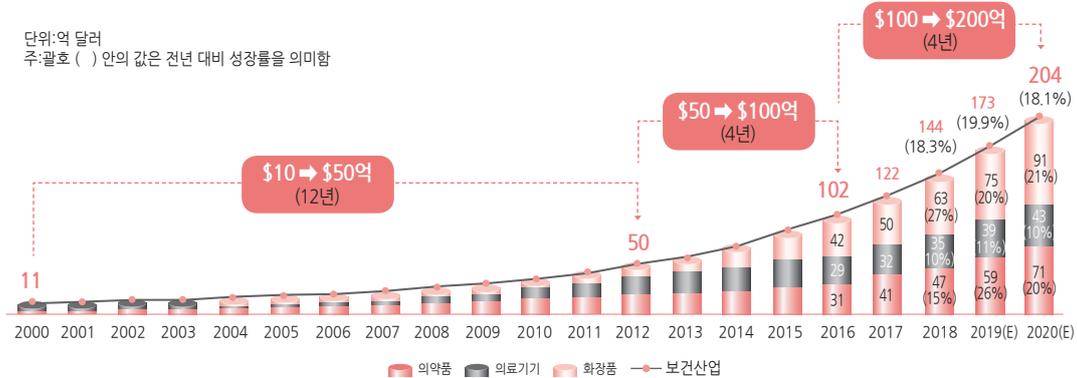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14-'18)	
						비중	(%)
중국/홍콩	1,007 (93.5)	1,874 (86.1)	2,822 (50.6)	3,162 (12.0)	3,978 (25.8)	63.4	41.0
북미(미국/캐나다)	167 (45.2)	252 (50.4)	367 (45.6)	476 (29.9)	573 (20.3)	9.1	36.0
유럽(EU 28개국)	38 (19.1)	60 (58.3)	107 (78.5)	153 (42.2)	212 (39.2)	3.4	53.8
기타	683	745	898	1,170	1,514	24.1	22.0
화장품 총수출	1,895 (52.5)	2,931 (54.7)	4,194 (43.1)	4,960 (18.3)	6,277 (26.5)	100.0	34.9

주: ( ) 괄호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IV 보건산업 수출 전망

- 2019년 보건산업 수출시장은 '18년 대비 19.9% 증가하며 전년(18.3%)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청신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미국 판매허가 승인(트룩시마) 등의 요인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소모품 및 치과기기/용품에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對중 수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K-Beauty 품질과 인지도 향상으로 기존 중화권 중심의 수출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
- 2020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71억 달러, 의료기기 43억 달러, 화장품은 100억 달러에 근접한 91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함
- 보건산업 수출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초 10억 달러를 돌파한 2000년을 기준으로 50억 달러를 달성하기 까지 12년, 이후 5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는 4년, 100억에서 200억 달러까지 4년이 소요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를 이어가고 있음
  - 2000년 11억 달러에 그쳤던 보건산업 수출액이 2020년에 이르러 20배 외연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산업 수출 키워드는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양적' 동반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7] 보건산업 수출 전망(2018~2020년)



주: 2018년 의료기기 수출액은 HS코드 기준, 식약처 수출실적 발표 이후 일부 수치 차이 발생 가능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보건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 2018.11.

## V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은 144억 달러(전년 대비 18.3% 성장)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2004년 이래로 1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음
- 2019년 보건산업 수출시장은 '18년 대비 19.9% 증가하며 전년(18.3%)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청신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 2020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71억 달러, 의료기기 43억 달러, 화장품은 100억 달러에 근접한 91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함
  - 2000년 11억 달러에 그쳤던 보건산업 수출액이 2020년에 이르러 20배 외연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산업 수출 키워드는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양적' 동반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국내 기업은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야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 정책 심화에 따른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부는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산업 육성의지를 피력해야 할 필요성 있음

